

판판뉴스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 불교계 최초의 일간지 창간의 주춧돌이 되기를

지난 2008년 8월 1일 창간된 판판뉴스가 어느덧 지령 100호를 발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합 시사주간지로서 자리 잡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 넓은 인도 땅을 직접 걸어 다니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판판뉴스는 부처의 그런 전도(傳道)의 발걸음을 닮아 전국의 모든 사찰에 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판뉴스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화두를 쟁기며 세간과 출세간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사회와의 소통을 열어가는 소식지로서의 사명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이겨내고 이제 종합주간지로서 자리 잡은 만큼 계속해 지령 200호, 300호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판판뉴스가 불교계 최초 일간지 창간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판판뉴스의 지령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